인도 쉬라바스티 금강경 성지 떠올라

금강정사등 5개단체 공동법인 추진

명상센터 세워 금강경 가르침 지도

부처님께서 금강경을 설한 인도 쉬라바스티(사위성) 기원정사가 금강경 수행의 성지로 떠오르고 있다.

인도 쉬라바스티의 금강정사(주지 대인), 델리의 금강경연구원(원장 대인), 한국의 금강경독송회(지도법사 김재웅)와 바른법연구원(원장 김원수), 양산 금장사(주지 대인)는 최근 인도에 'Diamond Sutra Reseach Society(금강경연구원)' 법인을 공동으로 설립, 쉬라바스티를 세계적인 금강경 수행의 성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인도정부의 법인인가를 기다리고 있다.

금강정사와 금강경연구원 등은 인도성지 순례단을 중심으로 순례전에 '금강경 제대로 읽기 프로그램'(독송법, 금강경 해석, 수행정진 기도법)을 진행하고, 금강정사의 수행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국내·외국인을 대상으로 금강경의 연구·전파·포교에 심혈을 기울여 금강경 수행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원력을 세웠다.

이를 위해 금강정사는 지난해 10월 기원정사 인근에 3500평의 부지를 확보하고 이달중에 200평 규모의 명상센터 설계도를 완성, 상반기내에 건축불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금강정사는 이와 함께 국내의 바른법연구원과 연계해 '금강경 제대로 읽기운동'을 펼치는 한편 매년 겨울철 보름, 한달 과정의 순례단을 모집해 수행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아울러 쉬라바스티 주정부와 협의해 '금강경 축제의 날' 또는 기간을 정해 포교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금강정사 명상센터 설계를 위해 최근 귀국한 금강정사 주지 대인스님은 "현재 인도에는 많은 사찰이 있지만 수행도량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은 거의 없다"면서 "국내·외 성지순례자를 대상으로 금강경 수행법을 가르쳐 인도에 불교가 다시 중흥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현재 부처님의 탄생지이자 교화·열반지였던 네팔 및 인도에는 불교신도가 많은 태국 미얀마 스리랑카 중국 일본에서 온 사찰들이 많이 있다. 이들 사찰들은 국가 또는 종단차원의 재정지원으로 활발한 포교에 나서고 있는 반면 한국 사찰들은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외국 사찰들은 막대한 불사금으로 대규모 사찰과 학교, 병원 등을 건립, 자국 순례자는 물론 타종교를 믿는 현지인들의 교화에도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지만, 한국 사찰들은 불교성지와 인연이 닿은 몇몇 스님들이 개인적인 원력에 의존하는 형편, 종단 차원의 지원은 고사하고, 현지에 있는 한국 대사관 마저 특정종교라는 이유(개신교 직원이 다수)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번 쉬라바스티의 금강경 성지화 불사는 인도·네팔의 포교 및 불사에 신선한 자극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바른법연구원 =0344-963-2872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인도 쉬라바스티 금강정사 앞에서 순례자들과 함께 한 대인스님(왼쪽에서 두번째).

◇내원정사 동자승들이 부산 남포동 거리에서 강원도 산불 이재민 돕기 거리 탁발을 하고 있다.

산불이재민에 온정물결

불자련등 바자·탁발성금 전달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강원도 산불 이재민 돕기에 불자들의 온정이 이어졌다.

부산 내원정사에서 삭발 수계식을 가졌던 봉축 사절단 동자승들은 8일 남포동 일대에서 강원도 산불 이재민을 돕기 위한 자비의 탁발행사를 가졌다. 지안(5세) 지견(6세)군을 비롯한 12명의 동자승들은 남포동 구미화당, 극장가, 지하상가 등을 돌며 2시간여 동안 탁발, 4백2십만원의 성금을 모아 강원도 산불 이재민들에게 전달했다.

이에 앞서 강원불교연합회는 2일 남북정상회담 및 강원도민 발전을 기원하는 법회를 열고 화재 의연금 800만원을 강원도 김진선 지사에게 전달했다. 특히 월정사는 연등축제 행사비용을 줄여 전달했.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이 4월24일,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스님이 4월26일 각각 성금을 전달했으며 동국대 석림회 법사단도 4월28일 경주시내에서 산불 이재민 돕기 탁발행사를 펼쳤다.

불교자원봉사연합회는 7일 서울 우정국로에서 열린 연등축제에서 강원도 산불피해지역 주민 돕기 바자를 실시했다.

김재경·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법주사 문화관 개원

속리축전 맞춰…범주스님 이웃돕기 서화전

보은 속리산 '산중다원 법주사 문화관'이 속리축전 개막에 맞춰 4일 문을 열었다.

법주사 진입로에 위치한 30평 규모의 법주사 문화관은 달마선원 범주 스님의 달마그림과 서각화 도자기 50여점을 전시하는 것을 시작으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불교문화포교에 나섰다.

특히 이번 전시회를 통해 마련한 수익금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할 예정인 범주 스님은 속리축전 개막일인 10일 오전 속리산호텔 잔디광장에서 5-6미터의 천에 대형 달마그림 그리기 행사도 함께 가졌다.

한편 제23회 속리축전이 9일부터 11일까지 3일동안 속리산 법주사일대와 보은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속리축전은 법주사 팔상전 탑돌이 행사와 불교문화우표전시회 등 다채로운 행사로 펼쳐졌다.

마지막날인 11일엔 법주사 봉축법요식을 시작으로 속리산 탑돌이 시연회가 두차례에 걸쳐 재연되었으며, 국악대향연 충북관악제 제등행렬 등이 열렸다.

김재경 기자

미룡사 베트남 학살양민 천도재

현지 기술학교 설립도 추진

부산 미룡사(주지 정각)는 7일 월남전때 한국 군인 등에 의해 희생되었던 월남 양민의 왕생 극락을 기원하는 천도재를 봉행했다.

부산불교자비원 육화신행회 주최로 치뤄진 이번 천도재에는 부산불교자비원 원장 정각스님, 베트남 출신 노동자와 유학생 등이 동참했다.

정각스님은 "노근리 양민학살 사건과 종군위안부 문제 등을 놓고 일본과 미국을 향해서만 잘못을 물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이 있다면 참회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며, 천도재의 의의를 설명했다.

베트남 돕기 첫 번째 사업으로 천도재를 봉행한 미룡사는 불교 단체들의 성금을 모아 올 연말 베트남 현지에 '청소년들을 위한 기술학교'도 세울 계획이다.

부산=천미희 기자

광명 서천사 전기누전 불

8일 경기도 광명시 서천사 법당에 전기 누전으로 추정되는 화재로 불이나 1천만원(소방서 추정)의 재산피해를 낸 뒤 40분만에 진화됐다. 이날 화재로 서천사 2층 법당 내부 15평과 불상 3점 등이 불에 탔다.

도필선 기자

울산신행단체련 千배공양

태화강서…국태민안 염원

울산신행단체연합회(회장 조동환)와 울산불교문화원(원장 노동식)은 6일 오후 울산 태화강 둔치에서 부처님오신날 기념 1000배 공양법회를 봉행했다.

윤행생 울산지사장

평화통일 기원법회

제주불교연합봉축위

제주도불교연합봉축위원회(위원장 수암스님)는 11일 제주시 종합경기장 대광장에서 '나라의 발전과 민족의 평화통일을 위한 기원법회'를 봉행했다.

김재경 기자

中 관음법문 사교 규정

중국 정부는 50만명의 불교 신도를 가진 '관음법문(觀音法門)'을 사교로 지목하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일 홍콩 성도일보(星島日報)에 따르면 중국 공안당국은 최근 법륜공을 비롯한 불법단체의 수련활동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데도 2일 홍콩에서 열린 '관음법문' 법회에 대륙신도 수백명 등 수천명이 참가한 사실을 중시하고, 관음법문 신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종단소식

조계종

통도사 사리이운·친견

15교구 본사 통도사(주지 신허)는 통도사성보박물관 개관 1주년을 기념해 27일 정오 부도전 및 성보박물관 입구에서 사리 이운식을 거행하고, 6월2일부터 7월30일까지 성보박물관 중앙홀에서 사리친견법회를 봉행한다. 이번 전시회선 부처님 진신사리 7구와 경주 감은사탑 사리구를 비롯 50여기의 국보·보물급 사리장엄구들이 함께 전시된다.

태고종

벽응대종사 49재 봉행

3월 25일 열반한 무형문화재 제50호 범패 기능보유자 장벽응대종사의 열반 49재가 12일 김포 문수사에서 봉행됐다. 이날 추모재에는 인간문화재 일응스님을 비롯 영산재보존회 회원스님들과 문수사 신도등 사부대중 5백여명이 동참했다.

백진결사 구치소 위문

젊은 승가모임인 백진결사(회장 김일로) 스님 10여명은 3일 영등포구치소에서 부처님오신날 봉축위문법회를 봉행하고 구치소에 탈수기 10대, DDR 기계 1대 속옷 30벌 등 위문품을 전달했다.

울산종무원장에 동파스님

울산교구 제5대 종무원장에 박동파스님(대원사 주지, 사진)이 선출됐다. 동파스님은 1948년울산生으로 65년 관음사에서 석봉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하고 현재 울산교구 종회의장, 동울산 사암연합회장 등을 맡고 있다.

천태종

상월대조사 26주 열반재

중창조 상월원각 대조사 26주기 열반대재가 30일 총본산 단양 구인사에서 봉행된다. 종정 도용스님의 증명아래 봉행되는 이번 열반대재에는 총무원장 운덕스님, 종회의장 덕산스님, 감사원장 정산스님 등 종단스님들과 신도 2만여명이 동참할 예정이다. (0444)423-7100

삼광한글학술상 시상식

부산 삼광사(주지 덕수)는 17일 오후 6시 30분 삼광사 지관전에서 제13회 삼광한글학술상 시상 및 제7회 대학생 논문발표대회 수상자 시상식을 갖는다. (051)808-7111

진각종

종조탄생절 봉축헌화식

종조 회당대종사의 제99회 탄생절 봉축헌화식이 10일 총인원 종조전과 울릉도 금강원 종조전에서 동시에 봉행됐다.

이날 전국심인당에서는 오전 10시 종조탄생절 봉축법요식을 봉행하고 경로잔치, 봉사활동 등도 개최했다.

대표전화 1588-5525 개통

전국 어디서나 지역번호 구분없이 가까운 심인당과 연락이 가능한 전국대표전화 1588-5525가 1일부터 개통됐다. 한국통신에서 제공하는 1588서비스는 지역번호 구분없이 전국 어디서나 1588국번으로 접속이 가능한 서비스로 발신자가 현재의 위치에서 1588-5525를 누르면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심인당에 전화가 연결돼 심인당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무량종

청송감호소 위문법회

총무원장 지은스님, 감찰원장 만오스님, 부산종무원장 원우스님, 경북종무원장 만법스님 등 종단 간부스님과 신도 30여명은 9일 경북 청송 제1 보호감호소에서 감호자들과 함께 부처님 오신날 법회를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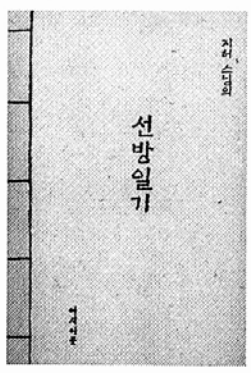
당신은 본래 청정하고 신성한 존재입니다.
자신을 바꿀 수 있는 멋진 길이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봐타코스
◐이뽀탁 코스는 7-9일 걸리며, 비용은 160만원입니다.
◐전화주시는 본뷰는 안내서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교통편 : 서울역, 시청앞, 조계사앞 3호선 경복궁역에서 135, 135-1, 2, 3번 버스로 약 20분 거리
밝은길 아봐타센터
마스터 / 위저드 김회균 합장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TEL : (02)396-2736 H.P. 016-228-2358

새로나온책

선방일기

선방에서의 수행 풍토는 물론이고, 당시의 시대상까지 접할 수 있는 값진 글!

이 『선방일기』는 1973년 봄 『신동아』의 논픽션 공모에 당선된 작품으로
'지허知虛'라는 서울대 출신 스님의 선방에서의 일과가 솔직담백하게 담겨 있다.
일반인들로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선방에서의 수행 풍토는 물론이고, 당시의 시대상까지 접할 수 있는 값진 글들이다.
수행자로서의 고뇌와 의지가 곳곳에 스며 있는 이 글은,
새로이 발심하여 출가 수행자의 길에 들어선 이들이나 재가불자, 그리고 불교에서
새로운 세기의 대안을 찾고자 하는 많은 이들에게 수행의 거울이 되리라 생각한다.



지허 스님 지음
B6 136쪽
값 5,000원

"겉만 보고 입산했다가 실상을 알고보니 세상에서 느낀 절망보다 더 큰 절망이 절간에 도사리고 있음을 알게 된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그대로 머무느냐, 하산하느냐이다." 선방의 숨은 이면이 때론 잔잔하게 또 더러는 치열하게 그려진다. 북 디자인도 내용에 어울리게 단아하다. — 문화일보(2000. 2. 23.)

'금단의 영역'으로 알려진 선방에서의 일상을 다루고 있는 이 책은, 70년대 초의 선방 풍속도로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큰 변화없이 이어지고 있는 선방의 전통을 보여주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 강원일보(2000. 2. 23.)

서울대 출신의 필자가 73년 봄 월간지 『신동아』의 논픽션 부문에 응모해 당선된 글을 예쁜 장정의 포켓북으로 꾸몄다. 일반인들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선방에서의 수행 풍경은 물론 세상을 보는 지혜가 각 장마다 번뜩인다. — 동아일보(2000. 2. 26.)

지허 스님에 따르면 절간에는 피안도 열반도 없다. 정신과 육체가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고통이 있을 뿐이다. 선객들은 깨달음의 가능성과 불가능성 사이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화두에 매달린다. — 한국경제(2000. 2. 26.)

스님들의 수행 공간인 선방은 일반인에게 신비의 장소이다. 그 때문에 산문을 닫아 걸고 자신과의 싸움을 계속해가는 스님들의 모습이 때로 침소봉대돼 전해지곤 한다. 최근 선보인 이 책은 선승들의 선방생활을 진솔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 경향신문(2000. 2. 29.)

여시아문 여시아문은 '들은 바,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전하겠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겠습니다. 주소 :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 (02)737-0695 팩스 : (02)737-0696

여시아문에서 펴내는 주머니 속 대장경

101 보르헤스의 불교강의 (교리·입문)
'20C의 창조자' '환상 문학의 창시자' '사상의 디자이너'라 불리우는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그에게서 전해 듣는 붓다의 가르침, 그 핵심을 모았다.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알리시아 후라도 공저, 김홍근 편역/ B6 변형 242쪽/ 값 5,500원

102 법수로 배우는 불교 (교리·입문)
불교의 법수는 일반적으로 쓰는 세속의 숫자와는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경전에 등장하는 수많은 숫자들…, 그 깨침의 묘리를 푼다.
이제열 지음/ B6 변형 190쪽/ 값 4,500원

201 깨달음으로 가는 올바른 순서 (생활불교)
궁극적인 깨달음을 노래하지만 그것보다 불교에 대한 마음가짐과 기초 수행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티베트인들의 정신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책이다.
초펠 수님 편역 / B6 변형 178쪽/ 값 4,000원

301 참선요지(參禪要旨) (선禪)
진정한 수행자의 모습을 찾을 수 있게 참선의 요지만을 담았다.
허운(虛雲) 화상 법어, 대성(大晟) 스님 옮김/ B6 변형 278쪽/ 값 5,500원

302 방편개시(方便開示) (선禪)
깨달음 그 자체보다는 궁극에 어떻게 도달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허운(虛雲) 화상 법어, 대성(大晟) 스님 옮김/ B6 변형 330쪽/ 값 6,000원

303 무문관, 혹은 "너는 누구냐" (선禪)
한글 세대를 위한 선(禪)불교 강의
한형조 지음 / B6 변형 334쪽/ 값 6,000원

401 허공의 딸꾹질 (문학)
조선 시대 선사 44인의 선시 모음집
이종찬 지음/ B6 변형 282쪽/ 값5,000원

501 불성이란 무엇인가 (문화·학술)
모든 중생에겐 불성(佛性)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성불할 수 있을까?
전치수 지음/ B6 변형 196쪽/ 값 4,500원

502 부처님 말씀대로 가르치세요 (문화·학술)
황폐한 우리의 교육 현장에 던지는 붓다의 음성 '천상천하유아독존'
김증서 지음/ B6 변형 182쪽/ 값 4,500원

• 주머니 속 대장경 시리즈는 계속 출간됩니다 •